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62-1호 2003년 4월 24일(목)

### 제목1: 7월이후 무더기 퇴출될듯-7월 HACCP 전면 의무적용 불구 절반이상 준비안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지정을 받지 못한 도축장들이 오는 7월이후 무더기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모든 도축장에 대해 HACCP의무적용이 실시되지만 HACCP적용대상 도축장 162개소 가운데 절반이상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최근 'HACCP 미적용 도축장 행정처분 지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HACCP를 적용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적용작업장 지정을 받지 못한 도축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HACCP적용여부 실태조사는 시·도가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검역원에 HACCP적용작업장 지정신청중인 도축장은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여부 실태조사후 행정처분 여부 및 내역을 판단해 미흡도축장은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검역원에 HACCP적용작업장 지정신청도 하지 않은 도축장 가운데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작성 도축장은 1개월 영업정지, 기준은 작성했으나 이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3차처분까지 가능한 행정처분 주기를 감안해 4차이상 위반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취소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이달 현재 HACCP적용대상 도축장은 162개소이며, 이 가운데 38%인 61개소가 HACCP를 적용중에 있고, 적용심사중인 작업장이 15개소이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한 관계자는 "HACCP적용 도축장들은 HACCP 의무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미적용도축장들은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HACCP 의무 적용으로 도축장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이 없는 일부 도축장이 정리되는데 대해 축산업계는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발췌: 농수축산신문

☒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이사회를 2003년 5월 14일(수)에 개최할 예정이며 당일 장소와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

##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62-2호 2003년 4월 24일(목)

### 제목2: 농어촌대책 TF(태스크포스)팀 가동

대통령직속 농어촌대책 TF 현판식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관계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 팀장에 정명채 박사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인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집행을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의 조직인 농어촌대책 T/F(태스크포스, 팀장 정명채)가 18일 세종로 중앙청사 604호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농림부 장관, 최낙정 해수부 차관, 정명채 팀장, 정대근 농협회장, 차석홍 수협회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농어촌대책 T/F는 농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과제를 매월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관련부처에 통보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어촌 TF는 정명채 팀장(청와대 1급 비서관), 농림부·해수부 파견 행정관 각 1명, 사무보조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명채 팀장이 농특위 사무국장을 겸임, 농특위 논의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부 정책으로 확정함으로써 집행력을 강화하게 된다. T/F는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에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정명채 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농어촌문제에 관련된 부처들의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해 참여정부의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

### 제목3: 돼지고기 수입 자제 요구 '외면'

◇롯데햄·한국냉장·농협무역·진주햄 등 대형수입업체

최근 콜레라 발생과 돼지값 하락 등으로 양돈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롯데햄, 한국냉장, 농협무역, 진주햄 등 대형수입업체들이 양돈협회의 수입철회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CJ푸드·대한제당·롯데햄롯데우유·진주햄·한국냉장·농협무역 등 9개 육류수입업체와 효성마켓팅·농심 등 32개 일반육류수입업체에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4일까지 수입자제에 동참한 업체는 지난 8일 대한제당과 14일 CJ푸드 등 2개 업체가 전부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속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의 축산물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말까지 수입된 돼지고기는 총 1만4723톤으로 농협무역, 한국냉장 등 대형돈육가공업체들이 수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3월에 발표된 농림부 축산물수입검역통계를 처음 보고 축산농가에 사료를 파는 업체와 '농협'이라는 이름을 단 곳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20여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2개 업체 외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국내 양돈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내 양돈현실을 감안, 수입자제 요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